

메시지 3

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됨

성경: 요 1:16, 롬 12:6, 고전 1:2-4, 고후 13:14, 갈 6:18, 엡 4:7, 29, 빌 4:23, 계 22:21

- I.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— 갈 6:18, 히 4:16, 계 22:21.
- A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, 은혜의 체험이어야 한다.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소유하는 삶이다 — 고후 1:12.
 - B. 총체적인 생활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— 고후 13:14.
 - C. 복합되신 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바름으로서 움직이시어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게 하신다 — 요일 2:20, 27.
 - D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, 곧 은혜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신다.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삼일 하나님의 거처와 그릇이 되었다 — 히 10:29하, 갈 6:18, 빌 4:23, 몬 25, 딤후 4:22.
 - E.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. 은혜는 삼일 하나님, 곧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버지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아들이시다 — 고전 15:45하, 6:17.
 - F.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 함께해야 한다 — 빌 4:23, 엡 4:7.
- II.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에 근거한다 — 고전 1:2-4.
- A.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회의 영성이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.
 - B.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의 기반이다 — 고전 16:23.
 - C.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에 근거한 것이다.
 - D. 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다 — 계 22:21.
 - E.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기반으로 받았고 이 은혜 위에 서 있으며, 우리의 속성이나 미덕이나 탁월함 위에 서 있지 않다.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은혜, 심지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— 요 1:16.
- III.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의 완결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이다 — 고전 12:12-13, 27, 엡 1:6-8, 22-23.
- A. 은혜는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. 교회생활 전체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인 은혜에 달려 있다 — 벧전 5:10, 행 4:33, 고후 8:1, 13:14.
 - B.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과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적으로 누리는 데서 나온다 — 고전 1:9, 고후 13:14.
 - C.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— 롬 12:4-6상.
 - D. 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르며,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결과이다 — 롬 12:6.

1. 이 은혜는 신성한 요소로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— 요 1:16, 고후 13:14.
 2.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영적인 재능과 능력의 요소를 가져오고, 이러한 요소는 생명의 성장과 함께 생명의 은사들로 발전되는데,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— 롬 12:6-8.
 3.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은사가 은혜에 따라 다르다.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은혜는 은사에 따라 받은 것이다.
 - a. 은혜는 은사를 산출하고 공급하는 신성한 생명이다.
 - b.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산출하는 것은 바로 은혜이다. 그러므로 은사는 은혜에 따른 것이다.
 - c.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혜가 은사에 따른 것, 곧 은사의 분량에 따른 것이다.
- E.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나쁜 말도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고 ‘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’ 해야 한다 — 엡 4:29.
1.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는 말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.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이다 — 고후 13:14, 롬 16:20, 고전 16:23, 갈 6:18.
 2.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— 엡 4:29.

IV.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들을 위하여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 — 엡 5:30.

- A. 에베소서 3장 2절과 9절에서 바울은 헬라어 단어 ‘오이코노미아(oikonomia)’를 사용한다. 9절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고, 2절에서는 사도의 청지기 직분을 가리킨다.
- B.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.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살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— 엡 3:2-7.
 1.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하여,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— 고전 4:1-2.
 2. 이 청지기 직분에서 사도의 사역이 시작되며, 사도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,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— 고전 9:17.
 3. 바울의 사역은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믿는 이들이 누리도록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— 엡 3:8.
 4.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 있는 것이지만,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단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. 이 청지기 직분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다.
 5.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보편적인 것이다.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있다 — 엡 3:2, 9.